

신의 근본을 본다 (즉, 신의 이야기)

<차사본풀이> 작자 미상

→ 사건의 의미: 강한 임무를 위해서 파견하는 임명장 → 작품에서 뜻: 저승의 차사 즉, 저승사자.
갈래: 설화, 서사 무가, 무속 신화, 본풀이

성격: 신화적, 서사적, 무속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저승 차사가 된 내력

특징:

- ① 강림이 저승 차사로 죄정하게 된 내력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풀이함.
- ② 인물의 저승 여행을 통해 죽음과 사후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룸.
- ③ 각종 자연 현상, 사회 질서의 유래를 신성한 존재의 개입이나 신화 속 사건과 연관 지어 밝힘.
- ④ 열거와 대구를 통해 까마귀의 실수 탓에 인간의 죽음에 순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 ⑤ 무속 신화의 주인공들이 거치는 연속적 서사 중 '추방의 경험' 이 나타나지 않음.

줄거리

과양생처가 버물왕의 삼 형제를 죽이고 세 아들을 얻음.

↓

과양생처가 세 아들을 잃고 김치 원님에게 탄원함.

↓

김치 원님이 차사인 강림에게 저승으로 가 염라왕을 잡아오라고 명함.

↓

강림이 저승으로 가 염라왕을 데려오고 염라왕이 과양생처를 벌함.
(강림이 저승으로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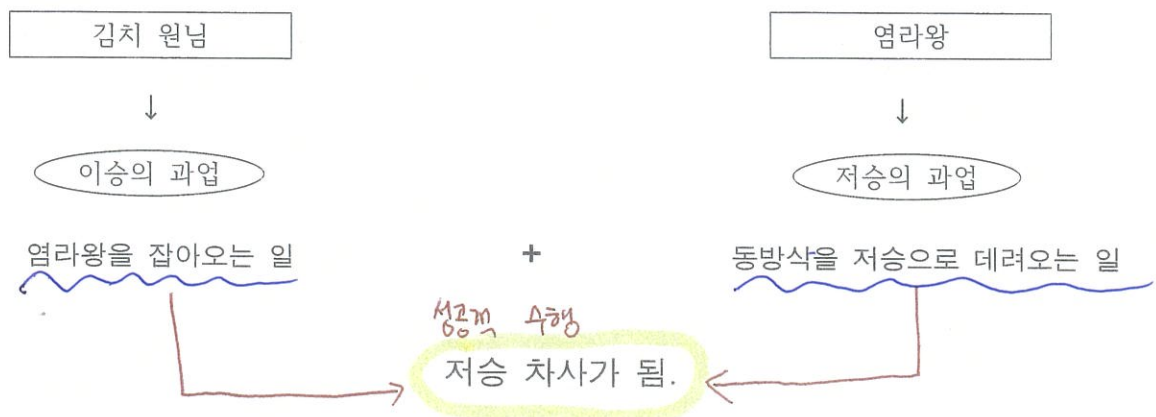
↓

염라왕이 강림이 재주를 탐내어 강림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 임무를 맡김.
(적패지 붙이는 일을 까마귀의 실수로 실패함)

↓

강림이 기지를 발휘하여 염라왕의 명을 수행하고 저승 차사가 됨.
(강림이 동방삭을 잡고 저승 차사가 됨)

강림의 저승여행



핵심 인물 정리

강림

- 이승 차사인 강림이 이승과 저승의 과업을 잘 수행하여,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 차사가 됨.

이원 사자

- 강림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줌.
- 강림의 저승 여행을 돕는 조력자

큰 부인

- 강림이 집을 나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저승 여행에 필요한 저승 증표를 미리 챙겨주는 조력자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 현상이나 사물, 사회적 관습의 유래

작품의 내용

큰 부인이 저승 여행을 떠나는
강림의 허리에 전대 허리띠를 매어 줌.
(동심결, 불삼, 운삼)

인간의 수명을 적은 염라대왕의 적패지를
까마귀가 실수로 잃어버림.

실수한 까마귀를 벌주느라 강림이 곤장으로
까마귀의 아랫도리를 때림.

저승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여 삼천 년을
살아온 동방삭을 강림이 저승으로 붙잡아 옴.

해당 내용이 설명하는 유래

죽은 이를 묻을 때 동심결, 불삼, 운삼을
함께 넣어주는 장례 관습의 유래

인간이 나이 순서대로만 죽지 않는
자연 현상의 유래

아장아장 걷는 까마귀의 독특한
걸음새가 생겨난 유래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자연 현상 유래

차 사 본 풀 이 작자미상

갈래

〔무속신화, 본풀이, 무당 노래 중 소리 많은 것〕

설화, 무속 신화, 서사 무가

서사 무가 : 줄거리를 갖춘 무가로, 무가란 무속 의식에서 무속인들이 구연하는 사설이나 노래이다.

서사 무가를 무속 신화, 본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풀이 :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노래하는 신의 내력담으로, 주로 제주도에 많이 남아있다.

제목의 의미

‘차사’는 저승 차사, ‘본풀이’는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노래하는 신의 내력담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강림’이 저승 차사가 되기까지의 내력담을 다룬다.

주제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저승 차사로 자리잡기까지의 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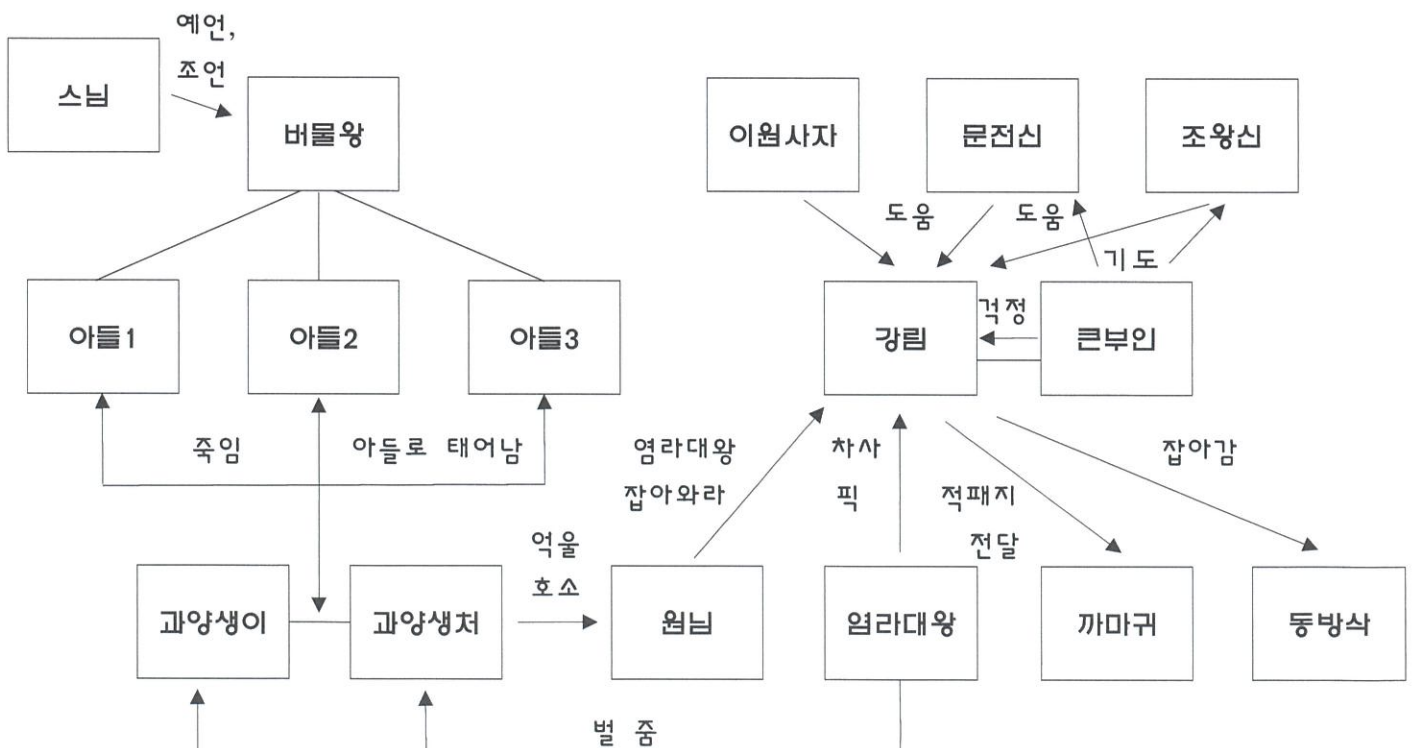
특징

① 자연 현상과 사회 질서의 유래를 신성한 존재의 개입이나 신화 속 사건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인간 죽음의 순서, 까마귀의 걸음, 인간의 유한성)

② 강림의 저승 여행을 통해 사후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인물 관계도



줄거리

< 강림이 저승 차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

<p>동경국의 버물왕에게는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 여섯 아들이 일찍이 죽어 세 아들만 남아있었다. 어느 날 한 스님에게 세 아들이 단명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살리기 위해선 3년 동안 고된 장수 생활을 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조언을 얻게 된다. 이 때 스님은 과양생이와 과양생처를 조심해야 한다고 이르지만 버물왕은 이를 아들들에게 전하지 못한다.</p>
<p>3년의 고된 장수 생활의 마지막 날에 세 아들은 어느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쉬어가는데, 그 집이 과양생이의 집이었고, 아들들의 재물을 탐낸 과양생이와 과양생처는 술에 독을 타서 이들을 죽이고 이들의 시체를 연화못에 빠트린다.</p>
<p>과양생처는 연화못에서 연꽃 세 송이를 발견하고 집에 가져오는데, 이 연꽃들이 구슬로 변하였고, 이 구슬들을 먹은 과양생처는 이후 아들 세 쌍둥이를 낳게 된다. 이 세 아들들은 장원에 급제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 시에 죽게 된다. 이 죽음이 억울했던 과양생처는 원님에게 찾아가 염라대왕을 데려와달라고 요청하고 원님은 계락을 써서 강림에게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데려오도록 한다.</p>
<p>강림이 걱정되었던 큰부인은 시루떡을 만들어 기도하는데, 조왕신과 문전신, 이원사자가 강림이 저승에 가는 것을 돕는다. 저승에 간 강림은 버물왕의 세 아들을 만나 억울함을 듣고 이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염라대왕을 만나 강력한 기세를 보이고 염라대왕이 이승으로 직접 행차할 것을 약속받고 이승으로 돌아온다.</p>
<p>염라대왕이 이승에 나타나고, 과양생처의 억울함을 듣는 과정에서 과양생처의 세 아들이 그들이 죽인 버물왕의 세 아들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염라대왕은 과양생이와 과양생처의 죄를 밝혀 처형하고, 강림의 기세가 인상 깊었던 염라대왕은 자신은 강림의 영혼을 갖고, 원님은 강림의 육체를 갖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 이후 강림은 저승 차사로 활약하게 된다.</p>

< 저승 차사가 된 이후의 에피소드 >

<p>저승 차사가 된 강림은 염라대왕에게서 인간은 정해진 명에 따라 저승에 오라는 명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이승으로 향한다. 이 때 까마귀를 만나 까마귀가 이를 전해주겠다고 하여 적패지를 전달했는데, 까마귀가 저승에 가는 데에 순서가 없다는 식으로 다르게 전달하였다. 이후 까마귀는 벌을 받고, 인간의 죽음에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p>
<p>염라대왕이 강림에게 3천 년을 산 동방삭을 잡아오라는 임무를 맡겼는데, 강림은 꾀를 내어 솥을 씻으며 동방삭을 알아내고, 그를 저승으로 잡아간다.</p>

차사본풀이_작자미상

3317/황예슬

갈래	서사 무가, 구비 서사시, 본풀이	성격	무속적, 서사적, 신화적, 주술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저승 차사로 자리 잡기까지의 내력		
특징	-제주도의 대표 본풀이 중 하나임. -이승의 존재가 저승 차사가 되는 과정을 그림		

해제

이 작품은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이승에서 받은 과업과 저승에서 받은 과업을 차례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저승 여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염라왕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저승 차사로 자리 잡기까지의 내력을 기술한 무속 신화이다. 강림은 이승의 존재였다가 결국 신적인 존재로 변하는데 강림의 존재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저승 여행이다. 강림의 저승 여행은 이승과 저승으로 구획된 세계 간의 경계를 넘어 이승과 저승 사이의 소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투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시된 지문은 안 사인이 구연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전체 줄거리

자신의 세 아들이 단명하리라는 예언을 듣고 버물왕은 고승의 도움을 받아 아들들을 살리려 한다. 하지만 세 아들은 금기를 어겨 과양생처에게 살해되고, 이어 과양생처의 세 아들로 환생하나 한날한시에 갑자기 죽는다. 과양생처가 탄원서를 올려 김치 원님에게 해결을 요구하자 원님은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 염라왕을 잡아 오게 한다. 강림은 큰부인과 길보수꾼(이원사자)을 비롯한 여러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저승 연추문에 도달하고 염라왕을 붙잡아 그로부터 이승 방문을 약속받는다. 이승을 방문한 염라왕의 재판으로 세 아들은 부활하고 과양생처 부부는 처형된다. 염라왕은 강림의 능력을 높이 여겨 저승으로 데려가고, 강림은 동방식을 저승으로 데려오라는 염라왕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마침내 저승 차사로 자리 잡는다.

작품의 내용
큰 부인이 저승 여행을 떠나는 강림의 허리에 동심결, 불삽, 운삽을 넣은 전대 허리띠를 매어 줌.
인간의 수명을 적은 염라대왕의 적패지를 까마귀가 실수로 잃어버림.
적패지를 잃어버린 까마귀가 마침 가까이 있던 솔개에게 적패지를 내놓으시라고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툼.
실수한 까마귀를 벌주느라 강림이 곤장으로 까마귀의 아랫도리를 때림.
저승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여 삼천 년을 살아온 동방식을 강림이 저승으로 붙잡아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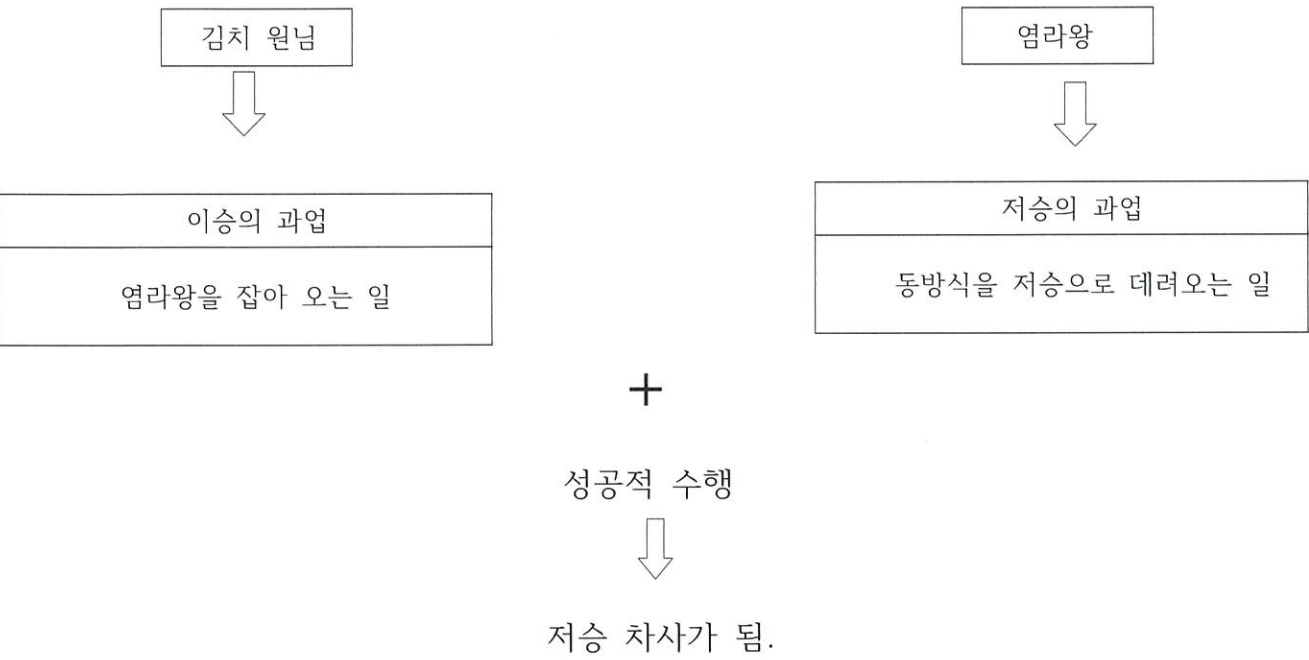


해당 내용이 설명하는 유래
죽은 이를 묻을 때 동심결, 불삽, 운삽을 함께 넣어주는 장례 관습의 유래를 설명함.
인간이 나이 순서대로만 죽지 않는 자연 현상의 유래를 설명함.
까마귀와 솔개가 만나면 서로 싸우는 자연 현상의 유래를 설명함.
아장아장 걷는 까마귀의 독특한 걸음새가 생겨난 유래를 설명함.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게 된, 즉 인간 생명의 유한성이라는 자연 현상의 유래를 설명함.

강림에게 주어진 과업

강림에게 주어진 과업은 크게 이승의 과업과 저승의 과업,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강림은 저상 여행을 통해 이 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간 차사(이승의 존재)에서 저승 차사(신적 존재)로 존재가 전환된다.

<저승 여행>



<차사본풀이>

1. 강림이 저승차사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풀이하는 제주도 무속신화 (설화)
2. 제주도의 장례 시 죽은 영혼을 위무하고, 저승이나 극락으로 보내는 것을 할 때 무당이 부르던 무가

갈래	설화, 서사 무가, 무속 신화, 본풀이
성격	신화적, 서사적
주제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저승차사가 된 내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림이 저승차사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시간 순서에 따라 풀이 (강림: 이승의 존재 -> <u>저승여행</u> -> 신적인 존재) ✓ 차사가 망자를 저승까지 잘 인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 ✓ 인물의 저승 여행을 통해 죽음과 사후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룸. ✓ 각종 <u>자연현상이나 사회질서의 윤회</u>를 신성한 존재의 개입이나 신화 속 사건과 연관지어 밝힘.

[주요인물]

강림, 강림의 큰 부인, 이원 사자, 과양생 처, 김치 원감, 염라대왕

[간단 줄거리]

1. 동경국 버물왕 아들 칠형제중 삼형제가 15세에 단명할 것이라는 예언 <-소사중이 법당 불공을 천유함.
2. 삼 년 불공을 마치고 커가하는 삼형제에게 소사중이 "과양 땅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했지만, 아이들은 피로와 허기를 견디지 못하고 과양생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부탁함.
3. 아이들의 물건이 탐났던 과양생 처는 아이들을 살해하고 주천강 연못에 버림. 며칠 후 다시 가보았더니, 연꽃 세 송이가 있었고, 그것들을 태우니 구슬 세 알로 변함. 그 후 과양생의 처에게서 삼형제가 태어남.(삼형제의 환생)
4. 과양생의 삼형제는 15세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왔는데, 모두 일시에 죽어버렸음. 과양생 처는 김치 원님을 찾아가 문제해결을 요구함. 김치 원님은 강림에게 염라대왕을 잡아오라고 함.
5. 강림은 큰 부인과 이원사자의 도움을 받아 저승길을 헤쳐 염라대왕을 잡았고, 스스로 가졌다는 약조를 받은 뒤 이승으로 돌아옴.
6. 약속한 시간이 되자, 염라왕이 내려옴. 염라왕은 주천강 연못을 마르게 해 삼형제의 뼈를 모아 살려내어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과양생 부부를 처형하여 사건을 처리함.
7. 김치 원님에게 강림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한 염라대왕은 각각 강림의 영혼과 육신을 나눠가지기로 합의하고, 염라왕이 강림의 영혼을 데려가버리니 강림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림.
-> 강림은 동방삭을 저승으로 데려오라는 염라왕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마침내 이승의 사람을 잡아가는 저승차사가 됨.

[차사본풀이의 기능: 유래 답]

작품 내용	유래
✓ 큰 부인이 저승 여행을 떠나는 강림의 허리에 동심결, 불삽, 운삽을 넣은 전대 허리띠를 매어 줌.	죽은 이를 묻을 때 동심결, 불삽, 운삽을 함께 넣어주는 장례관습의 유래
✓ 염라대왕의 적패지를 까마커가 실수로 잃어버림.	인간이 나이 순서대로만 죽지 않는 자연현상의 유래
✓ 적패지를 잃어버린 까마커가 마침 가까이있던 슬개에게 적패지를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어 다툼.	까마커와 슬개가 만나면 서로 싸우는 자연현상의 유래
✓ 실수한 까마커를 벌주려고 강림이 곤장으로 까마커의 아랫도리를 때림.	아장아장 걷는 까마커의 걸음새가 생겨난 유래
✓ 저승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여 삼천년을 살아온 동방삭을 강림이 저승으로 붙잡아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게 된) 인간 삶의 유한성이라는 자연현상의 유래

차사본풀이

갈래: 서사무가, 설화, 본풀이

성격: 서사적, 무속적, 신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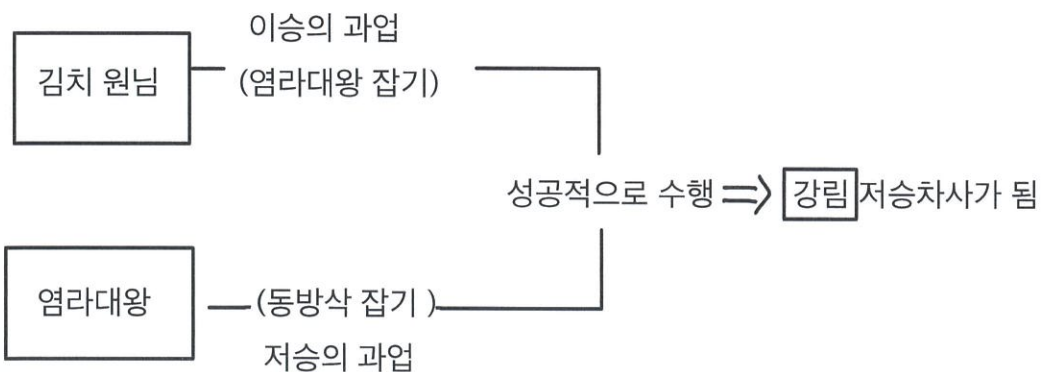
시점: 전지적 작가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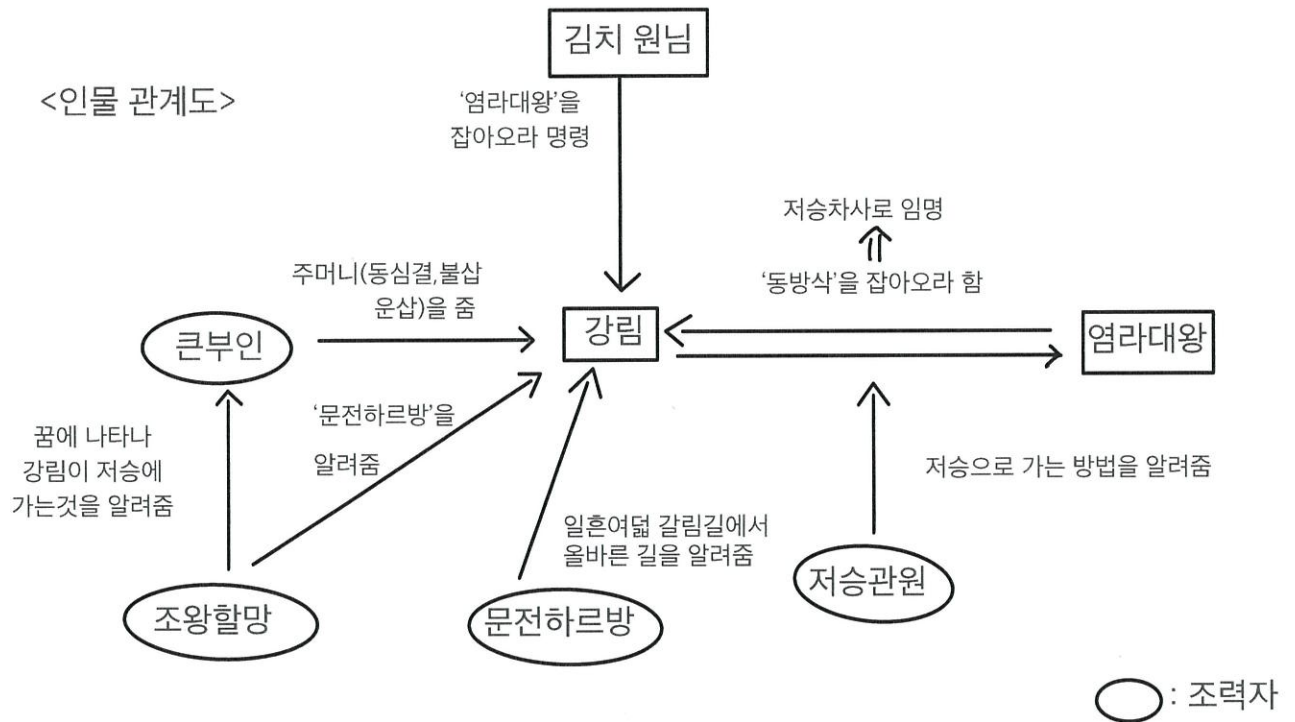
주제: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고 저승차사로 자리잡는 내력

<전체 줄거리>

버물왕의 아들 삼형제가 명이 짧다는 예언을 받고 절에서 공양을 드리다 집으로 돌아오던중 지친 나머지 스님이 조심하도록 명심했던 과양땅인줄도 모르고 어느집에 밥을 구걸하다 삼형제가 가진 공양물들을 탐낸 과양생처에게 살해당한다. 그에대한 복수로 그녀의 세아들로 태어나 장원급제하여 과양생처가 가장 기쁜 한날 한시에 모두 죽게되고 이에 억울했던 과양생처는 관아 원님에게 염라대왕을 잡아오라함에 원님은 강림을 시켜 염라대왕을 잡아오기를 명령한다. 이를 들은 강림의 아내 ‘큰부인’은 꿈에서 ‘조왕할망’이 나와 강림의 준비(주머니를 줌)를 돕고 길을 떠난 강림또한 ‘조왕할망’을 만나 덕분에 저승으로 가는 일흔여덟 갈림길에서 ‘문전하르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길을 가다 저승관원에게 떡을 주며 도움을 받아 저승으로가 염라를 잡는다. 염라대왕을 잡은 강림은 그에게서 내일 모레 이승으로 오는것을 약속받고 이승으로 온 염라대왕은 과양생처를 불러들여 그녀의 죄를 밝히고 벌을 내린다. 그 후 염라대왕은 강림의 유능함을 알아보고 저승에 데려가 ‘동방삭’을 잡아오라는 명령에 그를 잡아오고 저승차사가 된다.

<저승여행>





특징:

1. 제주도의 대표 본풀이중 하나
2. 강림이 저승 차사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풀이함.
3. 차사가 망자를 저승까지 잘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구송하는 이야기임.
4. 이승의 존재가 저승 차사가 되는 과정을 그림
5. 각종 자연 현상이나 사회 질서의 유래를 신성한 존재의 개입이나 신화 속 사건과 연관 지어 밝힘.

작품 속 내용	해당 내용이 설명하는 유래
강림이 저승에. 갈때 큰부인이 동심결, 불삽, 운삽을 줌	장례관습의 유래 설명
까마귀가 적패지를 잃어버림	인간이 나이 순서대로 죽지않는 자연현상의 내력에 대해 설명
까마귀가 솔개에게 적패지를 달라며싸움	까마귀, 솔개라는 자연물의 습성을 설명
강림이 까마귀의 실수에 혼을내며 아랫도리를 때림	까마귀 특유의 걸음새의 유래 설명
강림이 삼천년산 동방삭을 잡아옴	인간 생명이 유한하다는 질서를 바로잡으며 그 특성의 유래를 설명